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원에 관한 기초

제 1 과

첫머리에

이 교재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 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읽어 봐도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책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의미가 알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성경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때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성경책 안에는 66 권의 책들이 있었고 저는 그 중 어느 책부터 읽어야 할지 알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의 기초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당신이 아주 미개한 나라에 갔다고 합시다. 한 번도 문명사회로 나가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이 사는 정글 속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원주민들은 평생 한 번도 자동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안에 타고서 운전해서 다닙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당신 말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당신 말을 애시당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설명해야 한다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당신은 첫 마디부터 여러 자동차 모델이나 에어컨, 가죽 시트, 오토메틱 윈도우 등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다루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니까요. 그 대신 차 바퀴, 시트, 엔진, 운전대, 브레이크 등과 같은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것부터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내용들이며 그래야 의미있는 방식으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동차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연대기적 접근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차가 처음에 어떻게 발명되었고,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최초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하나로 조립되었는지, 각각의 부품들은 무엇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들은 무엇이고, 오늘날 구할 수 있는 차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하나 하나 낱알이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글 깊숙이 사는 원주민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앉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언젠가 하기는 다 하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성경의 대부분을 모두 다 다룰 때까지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차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용에 따라서 당신의 생각들을 조직화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가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차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차 밖에는 도는 바퀴들이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엔진이 어떻게 바퀴들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지, 조향 장치를 이용하면 어떻게 자기가 가려는 방향으로 돌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초들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와 홀든 자동차의 차이점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자동차 관련 기초들을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개관을 제공해 주는 어떤 기초 진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4 번의 공부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분명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물들을 바라보기

이 공부에서 우리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더러 가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이새에게 자기 아들들을 모두 부르라고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새에게로 갔고,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아들 일곱 명만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상 16:7 은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____을 보나 {주}는 마__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압의 마음을 보실 수 있으시므로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사무엘은 손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 아 들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들 각각이 외모로는 멋 있고 강하고 총명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모두 다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아들이 더 있는지 이새에게 물었 는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보살피며 바깥에 있었 습니다. 다윗은 불려 들어갔으며, 그가 걸어 들어올 때 하나님께 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 셴습니다. 전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바로 7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 님께서는 사람의 참모습을 아십니다.

당신과 제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개인적 견해에 의한 판단을 합 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대로, 옷 입은 대로, 관찰할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외적인 것들에 근거해서 그들에 관해 결정 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은 어떤지 우리는 정말 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속에 있는 것에 의해 판단하십니 다. 하나님은 일의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새의 처음 일곱 아들들을 거부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은 왕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일을 수행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는 사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앎으로써 사람인 우리가 삶을 살아 가는 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온갖 것들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함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실이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압니다. 당신이 건강 식품 속에서 살고,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당신의 몸을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올 지 모르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롬 14:12 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____를 하리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들을 하실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당신이 그 삶을 살았던 방식에 대해 대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이 오면 언제나 불안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은 결코 제가 좋아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기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나쁜 성적표를 집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을 마칠 때에 시험을 치른다는 것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사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주 제껴 놓은지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자기 삶에 대해 회계보고를 할 것이라고요.

롬 2:2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_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 제도에 대해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벌을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당신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회계보고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나 사물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여론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투표나 배심원을 통해 결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주 엄격하고 대단히 곧바르며 무척 엄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심판받을 때, 우리는 모두 유죄로 판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허한 삶을 산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 17:17 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_은 진리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사실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

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자님, 저는 정말 성경이 올바르다고 믿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성경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틀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그대에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으며, 저는 무엇이든지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믿는 것이나 제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을지 살지의 당신 인생 전부가 5분 간의 특별 테스트에 달려 있다면 그 테스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 테스트의 답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라면 관심이 있겠습니다. 저라면 "내게는 문제가 있고 나는 그 답도 알아."라는 친구의 말을 들어 보고 싶을 것입니

다. 적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경을 버리기 전에 한 번은 앉아서 적어도 그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 성경

요 17:17 에는 진리는 성경과 동일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성경은 딤후 3:16-17 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__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경 기록들(성경을 달리 이르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들은 제 숨이 들어간 단어들이입니다. 제가 말할 때 저는 그 단어들을 숨으로 내쉽니다. 성경의 단어들은 사람이 숨으로 내쉬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단어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받을 것이며 진리는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다른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벧후 1:21 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_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_____ 대로 말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물을 보시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 날 둘러 앉아 새 책을 고안해서 종교를 시작하자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대언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내어서 그 이름을 성경이라고 붙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언자들이 자기들 뜻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들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책을 한 권 써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책을 한 권 써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를 입증해 줄 어떤 것들을 살펴 봅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 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성경은 66 권의 책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놓은 도서관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경에는 66 권의 책들이 들어 있으며 서로 다른 40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40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은 약 1600 년에 걸쳐 살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로 만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다른 이들의 글을 읽어본 적도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 권의 책들을 모두 모아 보면 그 책들은 완벽하게 서로 합치됩니다.

이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모순도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 과학책이나 두 권 집어 들고 그 두 권이 합치하는지 보십시오. 아무 역사책이나 두 권이 합치하는지 보십시오. 66 권이 아니라 단 두 권만이라도 모든 점에서 전적으로 서로 합치하는 책이 있는지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66 권이며 40 명의 다른 저자들이 1600 년에 걸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식과 배경이 아주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완벽하게 합치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저자들의 정직함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일 제가 제 이름이 첨부된 거룩한 책이 될 책을 쓰려고 한다면 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죄들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알 필요가 없으니 저로서는 감추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웅들에 대해 아주 정직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영웅조차도 약점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서는 그것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저자들은 자기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기록의 대언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대언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대언자들은 사실상 미래를 미리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대언은 400 년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과 그가 자라서 통치할 나라의 이름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예언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대언은 어떤 도시가 파괴되며, 어떻게 파괴되고, 그 후에 어떻게 재건되는지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문자적 예언 수백 개가 성경에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예언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벧후 1:19 에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____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산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으며 실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며, 더 지속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진리라고 보십니다. 이 진리, 즉 성경은 어느 날 당신을 심판하고 저를 심판할 바로 그것입니다.

십계명 -- 출애굽기 20 장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나? 출애굽기 20 장을 펴서 하나님의 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율법)이라 불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모두 613 개의 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시민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운영 방법에 대한 법입니다. 시민법은 그들의 사회를 통치하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범주의 법은 의식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동물들과 여러 희생물들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들과 각종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서 지켜야 하는 의식에 대해 말한 법들입니다. 의식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매일의 의식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시는지, 사람이 관여해야 할 활동들의 종류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종류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약 성경의 마 5:17 에서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_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_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_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법은 결코 중지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저의 삶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어느 날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법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13 개의 법들을 아주 중요한 10 개의 특별한 법들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펴볼 법들입니다. 이 법들은 십계명이라 불리는데 출애굽기 20 장에 있습니다.

1.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 20:3 을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을 두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아무도,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저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따로 다른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를 가지는 것을 받아 들여 줄까요? 아니죠. 정상적으로는 결코 아니죠. 그걸 받아 들여 준다면 그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애정에 대한 다른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무척 질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정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신들도 두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에 입각해서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욱 되돌아 볼 때, 당신은 당신 존재의 한 올 한 올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삶의 모든 부분들로,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까? 참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 왔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원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어떤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채워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사람들과 일들-결코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일들-속에서 성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상들

4 절의 두 번째 계명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 __ 형__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하거나 경배하는 우상이나 조각상이 자기 집에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과 제가 만든 우상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롬 1:21-25 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신들을 만드는 우리 마음의 상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 외에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게 애정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네 스스로의 신을 고안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신들을 고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은 너무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멋진 신이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으며,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신은 "다 잊어 버리고 이리로 들어 오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구 세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타 클로스와 아주 흡사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바라고 있으며 이것이 필요한데 제게 그것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혹시 가족 중의 누가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몹시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당신이 한 것은 당신 스스로의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당신이 사는 동안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해 보세요.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지내 왔다고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 왔다고 말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3.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함

7 절의 세 번째 계명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_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취해서 "damn (지옥에 떨어뜨리다, 천벌을 내리다)"이란 단어나 다른 어떤 욕설 및 저주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분명 저주를 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저주를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비어 있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성 모독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더러 그것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을 의미함

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당신이 부르고 있는 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서 마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없이 중얼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때에는, 손을 씻고 나서 특별한 깃펜으로 기록해야 했으며, 그런 다음 다시 가서 손을 씻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워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가볍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텔레비전에서는 코메디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 번째 계명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썩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야들을 조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안식일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 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___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법 아래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하는 날, 쉬면서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상의 노동에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롬 14:5-8 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두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히 10:25** 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 받았을 때 "아, 내가 쉬는 유일한 날인데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들은 일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죠! 일요일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을 제쳐 두는 날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헌신하는 가운데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당신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시간을 사용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우리를 판단해 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하게 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해오고 있다고 스스로를 판단하십니까?

5.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은 12 절에 있습니다. "네 아__와 어__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한다,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지 순종한다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쓰레기를 비워라"고 하면 당신은 가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자, 당신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그 행동이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말하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나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술궂게 굴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으며,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앉은 채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부모님에게 한 번도 투덜거린 적이 없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이날까지 당신은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해 왔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 부모님이 공경을 받아 마땅한 대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항상 공경해 왔다고 말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을 불러 와서 증언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부모를 항상 공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은 13 절에 있습니다. "너는 살__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계명을 재해석하셔서 새로운 시

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마 5:21-22) 만일 당신이 당신 형제에게 화를 내면 당신은 살인을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당신을 밀어 내고 당신 앞으로 끼어 드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당신이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마음 속으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것처럼 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당신 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일들을 했어. 하지만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대단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잊어 버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께서는 분명 잊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당신 자신의 방법을 따라 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7.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14 절에 있습니다. "너는 간_하지 말라." 당신은 줄곧 당신의 배우자와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 5:27, 28 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 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이성을 보고 그릇된 생각을 품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든지 당신은 유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간음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고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곤경에 처할지 어떨지 알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8.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15 절에 있습니다. "너는 도__하지 말라." 당신은 자신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고무 지우개나 연필 혹은 펜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25 센트 이하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25 센트 이하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여기서 25 센트 저기서 25 센트 훔쳐 가지고 도망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당신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 것이 아닌 무엇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9.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16 절에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__증__하지 말라."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에서 모두 유죄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짓 증언은 뻔뻔스러운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오도하는 진술도 거짓 증언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모두 말하면 죄를 쓰게 될까 봐 절반만 진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절반만 진실을 말하면 그들을 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만큼보다 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로는 좋아 보이네라고 했지만 실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입은 옷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2 장에서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홉 번째 계명을 통과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어겨 유죄입니다.

10.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17 절에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의 집을 _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_내지 말라."

탐낸다는 강렬하게 욕심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은 무엇을 욕심낸 적이 있습니까? 실은, 당신은 너무나도 많이 욕심이 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궁리에 생각과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 3:5 에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두 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또 첫 번째 계명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는 하나님보다 이 차를 더 가지고 싶어. 나는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가지고 싶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뭐든 할 거야. 그 직업 너무 가지고 싶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교회를 포기할 거야."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것이 탐심이며 당신은 열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네 번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앞에 일들을 두므로 두 번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곤경에 처했습니다.

요 약

모두 열 개인 이 계명들을 죽 훑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에서는 거짓말쟁이, 도둑, 신성모독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22:35-40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법을 두 절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몸을 다하여, 우리 존재의 한 올 한 올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깨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깨어 있는 동안 당신 존재의 한 올 한 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며 사랑하고 원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유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자신보다 당신의 이웃을 더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려고 합니다. 얼마의 대가를 치르든지,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손실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려고 하며, 대가 없이, 기꺼이,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

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유죄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당신이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 2:10 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_ 조_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_가 되나니" 이 말은 당신이 만일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켜도 그 중 작은 한 조목이라도 못 지키면, 당신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해 유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만족시키려면 당신은 율법 전체를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말해서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항상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시간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당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생애에 걸쳐 누구에게 화를 낸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품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지껏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비록 종이 한 장일지라도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흠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무엇을 욕심낸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그 무엇이 당신의 혼을 사로잡도록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십계명 전체에 대해 단 하나의 계명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계명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전적으로 완전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당신이 유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어기면, 만일 당신이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상,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은 그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해 유죄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 생각이 어떠하든 혹은 당신 생각이 어떠하든, 혹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투표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라고 말하든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애에 한 번,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조사하도록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면 너무 늦으므로 그

전에, 바로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나쁜 소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인류 종족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의 죄가 처리되게끔 그들의 죄를 다루실 방도를 찾아 내셨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진리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